



◇콩에서 추출한 천연원사를 활용해 만든 내의 '콩의기적'을 '콩안경'으로 살펴보는 소비자들.

# 콩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선사들은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오로지 하나의 화두만을 참구하며 수행했다. 오늘날 현대인은 '건강'을 화두삼아 선사 못지않은 열정으로 '용맹정진' 중이다. 이들은 깨어있는 순간 어디서나 건강한 신체를 꿈꾼다. 그 같은 바람이 시장의 모든 상품에 녹아들어, 건강 기능성 제품 출시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이제 본래의 한 가지 기능만을 추구하는 제품은 소비자의 외면과 함께 한 마디 덕담을 들을지 모를 일. '건강의 옷을 입고 오라!' 건강을 위해 무장한 멀티상품들을 소개한다.

## 건강으로 무장한 멀티상품 붐

효과가 입증되면서 상황버섯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해조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검, 황산화 및 노화억제·면역강화·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천연 셀레늄'을 2~3배 강화시킨 우유, 고혈압과 무릎통증에 좋은 검은콩 포도주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다.

### ◇의류에도 건강마케팅

의류업계도 '건강 마케팅'이 한창이다. 겨울을 맞아 출시된 내의의 건강 기운이 완연하다. 보습효과와 유허물질 분해·흡수 효과가 뛰어난 '잠솨내의'를 비롯, 항균방취와 보온 기능이 특별한 '원적외선 한약초 내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주는 '맥반석 내의', 가려움증을 막고 땀냄새 제거 효과까지 있는 '키토산 내의'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내의가 강세를 보인다. 또한 콩단백질로 만든 천연섬유에 실크를 혼합한 스웨터, 옷감에 비타민을 녹인 비타민 외투 등도 겨울철 인기 품목이다. 청바지 원단에 은이 가공돼 몸에 좋은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은 청바지', 진주가루를 섞은 소재를 어깨 패드에 덧댄 정장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건강화장품'에 '건강미인'

최근 인기 있는 '폼바람'에 편승, 피부노화 예방과 보습정화효과가 뛰어난 '뉴두화장품'이 나왔다. 사람의 피부 단백질과 유사한 누에고치 단백질 추출 성분도 눈길을 끈다. 피부재생을 돕고 실크보습막을 형성시켜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준다는 이유로 로션, 비누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성장과 신체균형 및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함유제품도 삼쥬, 화장품 등의 소비재로 확산 중이다. 특히 지렁이 점액에서 추출한 천연 아미노산은 원료로 만든 마사지팩, 아이크림, 비누 등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기능성 소재 전문기업 우리바이오테크 박길현 대표는 "지렁이의 점액 분비물에 함유된 프로테아제는 피부를 각질화하는 케라틴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 보습·마백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thswhy@buddhapia.com

소설가 남지성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 아들을 위한 선택

며칠 전, 50세 정도 돼 보이는 한 신사분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고급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그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저를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영화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을 감명 깊게 본 때문인지 모르지만, 백혈병은 영화나 소설 혹은 드라마속의 주인공들이 앓는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백혈병을 자신의 아들이 앓게 될 줄이야!

그 분의 아들은 지금 22살로 대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학교성적도 늘 상위권에 속했지만 성악을 전공해도 좋을 만큼 성량이 풍부해서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키 수영 같은 운동도 수준급이고 외모도 준수해서 그의 주위에는 늘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은 지난 여름도 친구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동해바다로 갔다고 합니다. 전에도 가끔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동해바다로 갔기 때문에 그 들 내외는 별 생각 없이,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는 일상적인 당부만 했다고 합니다. 장비를 둘러메고 집

어떻게 보내야 하나'를 놓고 아내와 의견대립을 하다가 저를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지금 애인이 있습니다. 백혈병이 감기처럼 앓는 병이라면 같이 백혈병을 앓고 싶어하는 애인이 맞습니다. 저는 아들이 6개월 동안 애인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6개월을 60년처럼 살다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죠. 그런데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6개월 동안 절에 가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병이 완쾌되는 기적을 얻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런 기적을 얻을 수 없다 해도 업(業)을 맑히고 가게 되니 다음 생은 보다 건강한 몸을 받아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저희 내외는 매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아들한테 넘겨줬지만 아들 역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조언을 들을

## 인생의 의미 깨닫도록 조언을...

을 나간 아들은 1주일 후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아들은 감기몸살 증세를 보여며 몸져누워 앓더라는 것입니다. 과로를 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의 아내는 직접 생화방을 달려 먹이면서 피로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해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진찰과 검사 결과 후 아들에게 내려진 병명은 백혈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혈병이라니! 청춘병과도 같은 말이 믿기지 않아서 진찰을 몇 번 더 받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50%는 오진을 한다면 기계도 감진을 잘못 할 수 있겠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약속하게도 검사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두 달이 지나자 그들 내외는 물론 아들까지도 백혈병이라는 병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맞는 골수를 찾아 백암으로 노력했지만 아들과 맞는 골수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자기 내외의 골수까지도 말이죠.

의사 말로는 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금쪽같은 이 6개월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신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현명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겨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 아드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이란 진정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 혹은 주위 분들이 해야 할 일도 그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처님은 '인생이란 진정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이니까요. 그 일은 병원에서 애인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부처님을 모신 절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장소만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조언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생을 바로 이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이죠.

化緣 (02)704-3577

### ◆식품에 이는 건강바람

주요 질병 예방효과나 영양함유가 뛰어난 음식 및 요소를 첨가한 식품이 많다. 상황버섯을 현미잡쌀에 배양시켜 재배한 기능성 '버섯쌀'을 비롯, 상황버섯 추출액을 면의 반죽수로 사용한 '상황버섯국수' 등 상황버섯 응용 식품이 인기다. 항암효과는 물론,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치료에도

**클릭!**  
불교문화상품

**<반아바라밀다심경>목판**

고려 1236년부터 국가의 안녕을 위해 16년간에 걸쳐 판각된 고려대장경 중 <반아바라밀다심경>을 탁본, 누송 재질의 목판에 재현한 것이다. 81,258장의 경판 중 가장 깊고 오묘한 뜻을 담은 반아심경 경판이라 거실이나 공공장소에 걸어두면 좋다. (770mm×230mm x25mm) (02)732-1520

##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 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경험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든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영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학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역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입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 저 자: 오산 정대균  
● 책규격: A-4별정지 620쪽  
● 가 격: 220,000원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하나 : 751-810033-42207  
국민 : 765202-04-019996  
농협 : 170202-56-037616  
● 예금주: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 H · P 011-208-0051

#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에 샐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한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경 97마리를 달은 뒤 원경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경가 더 더워가기까지 교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16
-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환노임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분
- ◆ 정 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포 설치) 방담,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임박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 락 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남다라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음 지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 의 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지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지광원